

## 재개발로 사라지는 동네 책으로 남는다 ... ‘가재울’ 출간

· 은평뉴타운 사진전도

도심재개발로 사라지는 서대문구 남가좌동·북가좌동 일대 107만3000㎡(약 33만평)가 글과 사진으로나마 남게 됐다. 이곳 가재울 뉴타운 중 일부는 이미 아파트가 들어섰거나 현재 재개발을 위해 철거 중이다.

서울역사박물관이 최근 발행한 <서울특별시 뉴타운 민속지 ‘가재울’>에는 논·밭이던 가재울 일대가 1950년대 철거민과 수재민들이 모이면서 마을이 형성되고, 66년 모래내시장 개장과 함께 발전한 역사를 글·사진·자료 등으로 꼼꼼히 담았다.

‘그리운 가재울’ 편에서는 모래내시장 미곡상친목회를 비롯해 공동체 생활에 영향을 끼친 친목회·향우회까지 기록했다. 60년대부터의 주요 사건·사고도 정리했다. 뉴타운 찬·반 논란도 가감 없이 실었다. 지난해 10월 국회공청회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발언과 3구역 점포세입자 비대위의 주장 등 가옥주와 세입자 등 뉴타운 반대 주민의 육성도 글로 남겼다.

‘삶 그리고 이야기’에는 원주민 23명의 생애사가 기록됐다. ‘가재울 사진첩’은 대규모의 개발이 진행된 가재울 마을 경관과 사람들의 생활모습을 200여장의 사진으로 담았다.

이 책은 ‘가재울 뉴타운 보전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모래내시장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재민촌·쪽방촌 등을 별도 부지에 복원·전시하는 방안이다.

오문선 서울역사박물관 학예사는 “기록 정리를 하면서 보통 사람들의 삶의 위대함을 느꼈고 그 공간이 사라지고 있어 아쉬웠다”고 말했다.

사라지는 뉴타운 지역을 기억하려는 움직임은 또 있다. 사진작가 강홍구씨는 3월부터 몽인아트센터에서 <사라지다 : 은평 뉴타운에 관한 어떤 기록>이라는 제목으로 사진 19점을 전시 중이다. 대안학교 ‘공간 민들레’에 다니는 김수민양 등 학생 8명은 뉴타운 사업으로 사라지는 마포구 염리동을 <염리동 마을이야기>라는 한 권의 책으로 내놓기도 했다.

<임아영기자 layknt@kyunghyang.com>

입력 : 2009-04-29 17:58:44 | 수정 :

- Copyright © 1996 - 2009 . 이 페이지의 모든 저작권은 (주)경향닷컴에 있습니다 -